

화학기업 대졸초임 연봉 2532만원

페이오픈, 1000대기업 평균 대졸초임 2520만원 ...금융·언론 수위권

국내 1000대기업의 대졸 초임연봉은 평균 2520만원이며 최고 연봉과 최저 연봉 격차가 2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봉정보사이트 페이오픈(www.payopen.co.kr)은 국내 매출액 순위 1000대기업 845곳의 대졸 초임연봉(고정 상여금 포함하고 성과급 제외)을 조사한 결과, 평균 252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10월18일 발표했다.

최고연봉은 3700만원선으로 신한은행, 경남은행 등 금융권이 차지했고 최하연봉은 1500만원으로 조사돼 격차가 2200만원에 달했다.

금융·보험·증권업이 2896만원으로 가장 높아 가장 낮은 인력공급·시설유지(2033만원)와 863만원의 격차를 보였다.

금융권에 이어 방송·언론이 2861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고 공사·공기업(2778만원), 정유·가스(2725만원), 제약(2717만원), 정보통신(2617만원), 자동차·중공업(2612만원), 기계(2570만원), 운송·항공(2552만원) 순으로 연봉이 높았다. 화학·고무·플라스틱은 2532만원으로 운송·항공 다음이었다.

또 매출액 상위 10%, 10-20%, 20-30% 대기업의 평균연봉은 각각 2901만원, 2664만원, 2676만원으로 집계돼 매출액과 대졸 초임연봉 수준이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매출액이 가장 높은 삼성전자의 대졸초임 연봉은 2800만원 수준으로 221위에 그쳤고 매출액이 2위, 3위, 4위인 현대자동차(3000만원으로 131위), LG전자(2700만원으로 295위), 한국전력(2900만원으로 148위) 등도 대졸 초임연봉 순위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

다만, 성과급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성과급 지급 여부에 따라 실제 대졸 신입사원이 받는 액수는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페이오픈 이주원 대표는 “기업의 규모가 크다고 높은 연봉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내용과 성장 가능성 등 지불여력을 꼼꼼히 따져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05/10/19>